

중국 진출 한국 제조기업의 현지 장애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Barrier Determining the Performance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in China

백은영(Eun-Young Baek)

한남대학교 KRF 학술연구교수(제1저자)

구중순(Jong-Soon Koo)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제2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고찰
III.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IV. 실증분석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barrier the performance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in China. Also an empirical data use the field survey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in China. as a result, First, we find that employment-cost factor, that is rising labor costs, a change of occupation is an effect the performance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in China. Second, business beginning year and by 7 region factor is very significant on the performance of Korean FDI firms in china. And then, Korean corporate investment in China is a desirable form of long-term investment shall be determined. also we know that regions of China, differentiated investment approach is effective. finally, The result shows that FDI to China is need of the long term plan, and In actual use, these FDI should be applied flexibly in china business environment.

Key Words : barrier factor, performance, firm-specific advantage factor, size, business beginning year, employment-cost fact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53-B00037)

I. 서론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전 세계의 대 중국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23.6% 증가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의 대중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반면, 우리나라의 대중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투자건수(-39.5%)와 투자금액(-30.8%)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999년 이후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던 대중 투자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02년 후진타오 정권 등장 이후, 기존의 양적 성장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질적성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원 확보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²⁾. 이러한 대중국 투자환경 악화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직접투자 1위국인 대중국 투자는 2008년 건수와 금액 모두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환경 및 글로벌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목적이 2000년대 초반까지 비용절감이었다면 최근의 대중국 투자목적은 중국내수시장 확보로 전환되어 2005년 107건에서 2008년 775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이는 2008년 투자건수가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이나(이재우, 200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전략(백권호 외, 2002), 전략변화(양평섭, 2004) 등의 경영전략 측면의 연구와 투자패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지만수, 2004) 등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았으나, 성과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중국의 투자환경에서 대중 투자기업들의 경영성과(매출이익과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 성과)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한 중국에서의 기업활동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1) 중국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전 세계의 대중국 투자는 27,514건, 923.6억 달러로 건수는 전년대비 27.4% 감소한 반면, 금액은 2007년 747.7억 달러에 비해 23.6% 증가하였다.
- 2) 산업구조고도화 정책으로 자원과 섬유 등 노동집약적 제품인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는 반면, 전기전자, 기계류 등 기술과 자본 집약적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 3) 특히, 2008년에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218억 달러(2007년 217억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미국이 다시 우리나라 제1위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 4) 한국수출입은행의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중국 투자목적 중 저임금활용목적의 투자는 2005년 798건에서 2008년에는 228건으로 급속히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국 진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연구들에서 중국 투자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의 데이터만을 활용함으로써 급격히 변하고 있는 중국의 투자환경, 즉,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법적·환경규제, 임금상승 등의 변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투자환경 변화로 인해 대중국 진출 우리나라기업들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대중국 투자 기업들의 투자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제II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경영성과와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III장에서 가설검정 및 연구모형을 설명하며 이를 기반으로 제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외환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2003년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비용절감과 내수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환되면서(Xu & Shenkar, 2002)⁵⁾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대중국 투자 러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진출했던 많은 제조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산업고도화 정책, 즉,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 가공무역금지 품목의 확대, 최저임금 및 사회보장제도 준수 강화 등의 새로운 정책 변화⁶⁾등으로 인해 수익성 감소가 이어지면서 2008년 대중국 제조업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38.7%가 감소하기에 이른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비용이나 특화된 기술, 브랜드 또는 마케팅 등에 기반한 경쟁우위를 갖고 있을 때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J.F.Hennart, 1991, J.F.Hennart and Y. Park, 1993)⁷⁾ 해외

5) Xu, D., & O. Shenkar(2002)의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무엇보다 진출할 나라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Institutional Distance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 (4), 2002, pp.608 ~ 618

6) 이외에 일부 가공무역에 대한 증치세 부가가치세 환급금지, 노조설립확대, 단체교섭의 촉구, 노동계약 및 경제보상금(퇴직금)제도의 도입 등 외자기업에게 불리한 경영환경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7) J. F. Hennart, "The Transactions Cost Theory of Joint Venture", *Management Science*, 1991, J. F. Hennart and Y. Park, "Greenfield vs. Acquisition," *Management Science*, 1993 : 이들의 연구에서 해외직접투자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합작투자(Joint venture), 신설투자(Greenfield investment), 인수합병(Acquisition)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단

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은 현지국 기업에 비해 많은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S. Hymer, 1960, R. Caves, 1971)⁸⁾.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국 진출 우리나라 현지 제조기업들이 당면한 중국내 불리한 투자환경에 대한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장애요인이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수익성성과, 즉, 평균총매출과 평균영업이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해외투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요인과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업들은 대중국 진출 제조기업들로서 이들은 대부분 단독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현지기업에 비해 언어와 문화면에서 불리하고 중국 유통망에 대한 접근과 대정부 관계, 상이한 상관습 등 많은 부분에서 태생적으로 취약하다⁹⁾. 더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체제의 특수성(왕몽규, 2005, 이문형·정만태·김석진, 2005)¹⁰⁾으로 인해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 역시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Luo & Tan(1998)¹¹⁾은 중국이라는 신흥 국가에서 외국기업과 현지기업은 서로 상이한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외국인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Miles & Snow(1978)¹²⁾가 구분한 4가지 전략 중 외국기업은 분석자 전략을, 중국기업은 방어자 전략과 공격자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외국인 비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Luo, Shenkar, & Nyaw(2002)¹³⁾는 전략에 따라 외국인 비용 극복의 메커니즘이 상이하다고 하였다. 글로벌 전략은 표준화된 제품 및 성과를 통해 생산비 및 마케팅 비용 감소의 성과가 나타나지만 현지화 전략은 영업 매출 증가의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여, 상황에 따른 적합한 전략이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현지 외국인 비용을 더욱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업들 중 78.7%가 한국에 모기업은 둔 자회사 형태이다. 해외직

독투자기업의 경우 완전한 통제를 갖는 장점으로 인해 해외자회사의 경영이 단순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 모든 위험을 감당해야하는 위험부담이 크고 언어, 문화 등이 다른 현지국에서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 8) S. Hymer.,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 : A study of direct investment*, Cambridge, MIT Press, 1960, R. Caves,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1971.
- 9) 해외직접투자시 현지국에 비해 갖는 이러한 불리함을 국제경영학에서는 '외국인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라 부른다.
- 10) 왕몽규, 2005, 『중국 중장기발전적 중요문제 2006-2020』, 중국발전출판사, pp. 170-178, 이문형·정만태·김석진, 2005,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pp.18-34 : 중국은 1953년부터 사회주의체제로의 급속한 이행과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회발전 5sosus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는데 2006년 3월 확정된 제11차 5개년 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작용할 것이다.
- 11) Luo, Y. & Tan, J.J "A Comparison of Multinational and Domestic Firms in an Emerging Market: A Strategic Choice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ol. 4. No. 1, 1998, pp.21-40
- 12) Miles, R.E. & Snow, C.C.,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McGraw-Hill, 1978
- 13) Luo, Y., Shenkar, O., & Nyaw, M-K, "Mitigating Liabilities of Foreignness: Defensive versus Offensive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ol. 8. No. 3., 2002, pp. 283-300

접투자시 전술한 외국인 비용 이외에도 해외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때보다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Zaheer, 1995)¹⁴⁾. 특히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지리적(거리) 차이로 인한 비용, 상이한 현지환경에 동화되지 못하고 친숙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경제적 국수주의와 같은 현지국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특정국가에 대한 첨단기술 판매제한과 같은 투자모국 환경에 기인한 비용 등을 가리켜 해외시장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추가비용(additional costs)이라 주장하며 이는 글로벌 기업의 경쟁열위의 주된 원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Hymer, 1976, Zaheer, 1995).

그러나 Hamel and Prahalad (1985)¹⁵⁾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기업이 미국의 TV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하는 과정을 예로 들며 글로벌 기업은 본국에 있는 모기업과 해외투자 자회사간의 상호보조(cross-subsidization), 즉, 시장간(내수와 투자국 현지시장간)의 이익과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능력이 글로벌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투자국에서 겪는 장애요인관련 기존연구로 먼저 Loree & Guisinger(1995)¹⁶⁾는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현지국의 높은 세율과 직접투자로 인한 경영성과는 반비례한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Hines(2001)¹⁷⁾는 대체로 해외직접투자에서 조세 및 세제인센티브가 경영성과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투자국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는 현지국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과 현지국 환경에 의한 차별대우를 들 수 있다. 해외투자기업은 현지국의 경제, 문화,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획득해야 하는데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현지기업과 달리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곧 현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Luo, Shenkar & Nyaw, 2002)¹⁸⁾ 현지국의 제도적 규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됨으로써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게 된다. 또한 조대우(2006)¹⁹⁾의 연구에서는 대만과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해외진출시 장애요인이 중요할수록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의 경영성과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Zaheer, S., "Overcoming the Liability of Foreignn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2), 1995, 341-360.

15) Hamel, G and Prahalad, C, "Do You Really Have a Global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85 pp. 139-148.

16) Loree, D. and Guisinger, S. 1995. "Policy and non-Policy Determinants of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 (2), 1995, pp. 281-299. Also published in *Trade and Investment Policy*, edited by Thomas Brewer, Edward Elgar Publishing, Inc., 1998.

17) Hines, James R., Jr., "Tax sparing" and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 James R. Hines Jr. ed., *International Taxation and Multinational Activ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18) Luo, Y., Shenkar, O., & Nyaw, M-K, "Mitigating Liabilities of Foreignness: Defensive versus Offensive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ol. 8. No. 3., 2002, pp. 283-300 : 이들의 연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외국기업은 판시(Quanxi)를 통해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9) 조대우, 2008,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장애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pp.23-26

Ⅲ.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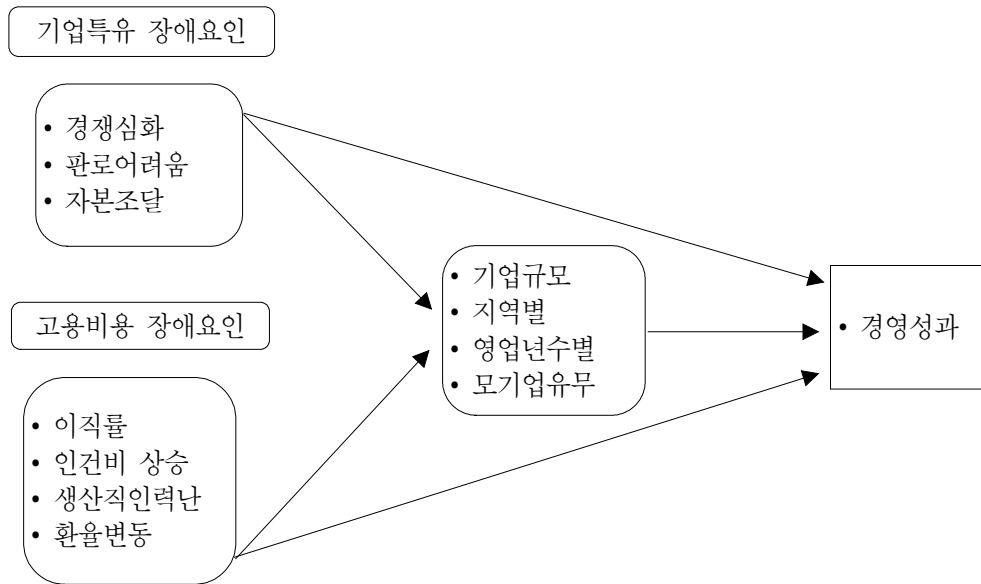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이자 해외투자국인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투자환경 변화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또한 기업의 규모나 중국에서의 영업년수가 경영성과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각 지역별 경영성과의 차이는 없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0개의 가설, 즉, 대중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특유의 장애요인으로 3개의 가설과 고용비용 장애요인으로 4개의 가설이 각각 경영성과(매출액)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통제변수로서 기업의 규모, 영업년수, 지역별 변수가 활용되었다.

실제적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겪는 장애요인으로 첫째, 정책적 장애요인(환경규제 강화, 외자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축소, 투자제한 업종 등 3문항), 둘째, 기업특유 장애요인(시장에 대한 정보미흡, 원활하지 못한 언어소통, 원자재 가격상승, 치열한 경쟁, 판로어려움, 기술유출 및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중국 파트너와의 갈등 등 7문항), 셋째, 금융관련 장애요인(조세부담 증가, 증치세²⁰⁾ 환급을 저하, 현지자본 조달의 어려움, 환율변동 등 4문항), 넷째, 고용비용 장애요인(높은 이직율, 노사분규 가능성, 생산직 인력난, 고급직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 5문항) 등 전체 19개 문항을 4개의 장애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응답자료 cording 후, 각 요인별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에서 12개의 변수가 요인간 타당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에서 유의하게 도출된 2개의 요인, 즉, 기업특유 장애요인과 고용비용 장애요인만을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20) '증치세'란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제도이지만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상품가격의 10%로 일괄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증치세는 5%에서 최고 17%까지 부과되는 변동세율이다. 따라서 내수용 상품에 대한 증치세는 퇴세(환급)가 없지만 수출용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시 부과되었던 증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세(환급)해주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수출증치세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가설의 설정

1) 기업특유의 장애요인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글로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활동은 모국에서와는 달리 현지국 특유의 장애요인 즉, 외국인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과 기업이 모국에서 축적한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요인이 자회사의 현지활동을 오히려 지연시키거나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cCloughan & Stone(1998), Mezas(2002a), Nachum(2003))²¹⁾. 본 연구의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기업이 기업특유의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했지만 중국 현지에서 체감하는 중국현지기업과 외자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기업활동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분석대상 기업 중 중국 현지판매를 목적으로 진출한 경우, 경쟁심화에 대한 압박감이 더 심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5점 리커드 척도에서 응답기업 평균 3.6)²²⁾. 또한 중국 각 지역의 특색과 함께 판시 중심의 상구조로 인해 판로에 대해서

²¹⁾ McCloughan, P. & Stone, I., "Life Duration of Foreign Multinational Subsidiaries: Evidence from U.K. Northern Manufacturing Industry 1970-93,"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16, No. 6, 1998, pp. 719-74
 Mezas, J. M., "How to Identify Liabilities of Foreignness and Assess Their Effects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ol. 8, No. 3, 2002a, pp. 265-282

²²⁾ 응답기업 중 한국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평균 3.1, 제3국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평균 3.3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 난관에 봉착한다(Luo, Shenkar & Nyaw, 2002). 분석대상 기업들 역시 중국 내수시장 판로 확보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²³⁾.

이러한 이유는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요인이 투자국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거나(Rugman & Verbeke, 1992)²⁴⁾ 아니면 외국인 비용에 의해 투자국에서의 활용이 저해되기 때문이다(Nachum(2003)²⁵⁾. 특히, 분석대상 기업들은 중국 현지 자본 조달 시 과중한 담보제공 요구나 대부분 1년 이내의 짧은 상환기간 등으로 인해 자본조달의 어려움(평균 4.0)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서 당면하는 기업특유의 장애요인이 기업의 경영성과(매출액)에는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1-1: 경쟁이 치열할수록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판로에 대한 어려움이 클수록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자본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클수록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고용비용 장애요인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우리나라기업들의 대중국 해외투자는 주로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제조업투자가 활발하였으며 중국은 그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집약형 조립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한국수출입은행, 2007). 그러나 최근 중국 제조업의 생산성이 개선됨에 따라 그동안 전통적인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입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고기술 산업 육성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전환됨으로써 기존 대중국 해외투자 기업들의 고용관련 비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 현지에서의 고용 비용 관련 장애요인으로는 위안화 환율상승과 신노동법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²⁶⁾, 특히 많은 응답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잦은 이직률, 그리고 생산직 노동자의 인력난과 더불어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의 요인 등을 들

23) 응답기업들이 '기타 의견'에 기술한 공통적 장애요인은 빠른 임금상승율과 중국 근로자의 이직률, 그리고 한국의 환율 하락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기타 중국의 달라지는 조세제도로 인한 과중한 조세부담과 원자재가격 상승, 판로개척의 어려움, 모호하고 미흡한 행정처리, 낮은 노동수준 등을 강조하고 있다.

24) Rugman, A. M. & Verbeke, A., "Subsidiary-Specific Advantages in Multinational Enterpris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2, No. 3, 2001, pp. 237-250.

25) Nachum, L., "Liability of Foreignness in Global Competition? Financial Service Affiliates in the City of Lond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4, No. 12, 2003, pp. 1187-1208

26) 중국의 '신노동법' 시행으로 현지진출 기업이 겪게 되는 문제는 노조위상강화, 연차수당 신설, 경제보상금(퇴직금)지급, 3회 노동계약 또는 10년 장기근속시 영구사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 있다. 2001년 발간된 OECD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기업 조세 인센티브”에서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규제완화가 가속되면서 조세 인센티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Swenson(1994)²⁷⁾은 외국인투자의 종류 및 유형별로 조세와 세제인센티브의 영향을 고찰한 연구에서 공장의 신설, 확장, M&A, 합작투자 등 투자의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공장신설이나 확장은 조세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반면, 외국인의 인수합병에 의한 투자는 조세와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⁸⁾.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증치세 저하 변수나 조세부담증가 변수가 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어떠한 유의미성도 찾지 못했다.

중국의 ‘신노동법’ 실시로 인한 최저임금 상승과 중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방침들이 대중국 진출 우리나라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비용 상승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용비용 장애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에서는 생산직 인력난, 인건비 상승, 이직률, 환율변동 변수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고용비용 장애요인과 관련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2-1: 생산직 인력난이 클수록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2: 인건비가 상승할수록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3: 이직률이 많을수록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4: 환율변동이 클수록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기업규모 & 지역별 & 영업년수별 요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에서 효과적인 현지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경영자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자원의 조달 능력은 현지기업과의 경쟁우위를 가져오기도 하고, 비용감소로 이어져 경영성과를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투자 시 기업의 규모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ood and Young, 1979)²⁹⁾. 이동기·조영곤·김명숙(2003)³⁰⁾의 연구에서도 한국기업의 중국자회사의 성과 결정요인 연구에서 중국자회사의 성과와 모기업

27) Swenson, D., L., “The Impact of U.S. Tax Reform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4, 1994, pp. 24-266

28) 본 설문의 변수 중 조세관련 변수, 즉 증치세 저하, 조세부담 증가 등의 변수는 요인분석에서 기업특유& 고용비용 장애요인에 묶이지 못하였고 또한 단순회귀분석에서도 매출액과의 유의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Hood, N, and S. Young,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Longman Group Ltd., 1979

30) 이동기·조영곤·김명숙, “한국 기업의 중국 자회사의 성과 결정요인 연구”, *무역학회지*, 제 28권 제3호, 2003, pp. 111-129

규모와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백은영(2009)의 연구에서는 대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수익성(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중국 해외투자 기업들은 중국체제와 고용시장의 특성, 즉, 중국 노동자의 높은 이직률, 낮은 노동생산성, 불리하게 진행되는 정책변화 등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 미비 등을 이유로 현지 영업기간에 따라 경영성과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Luo, 1995; 백은영, 2009). 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 투자한 일본합작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영업년수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Makino & Delios (1996)³¹).

대중국 진출 현지기업에 대한 경영성과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리적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은 31개 지역, 즉 4개의 직할시, 22개의 성, 5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진 거대 국가이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³²(한국무역협회, 2006). 또한 백은영(2007)³³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이 육성되고 있으며³⁴ 지역별 수입품목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중국 해외투자 기업들도 지역별 투자방식을 달리 진행해야 하는 바, 이로 인해 지역별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별, 지역별, 영업년수와 대중 투자기업의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한편,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경영성과는 크게 재무적인 지표로 측정하는 방법과 설문지를 통해 성과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및 전년대비 증가율(성장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재무적성과는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국제이전가격의 조작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회사가 재무적성과에 대해 공개하기를 꺼리므로 성과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힘

³¹) Makino, Shige & Delios, Andrew, "Local Knowledge Transfer and Performance: Implications for Alliance Formation in Asi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7, 1996

³²) - 長三角地區(장강 삼각주 지역 : 上海市, 江蘇省, 浙江省)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첨단장비제조, 교통운수, 환경보호 장비, 하이테크산업 등

- 京津冀地區(경진기 지역 : 북경시, 천진시, 허북성 지역; 京: 北京, 津: 天津, 冀: 河北을 지칭) : 자동차, 화공, 석유화학, 장비제조, 하이테크산업(광전자, 신소재IT/BT, 전자통신설비) 서비스업, 물류업 등

- 北地區(동북지역 : 요녕, 길림, 흑룡강성을 포함한 지역) : 청정식품, 농산물 식품가공, 자동차 및 부품, 야금, 석유화학공업, 석탄화학공업, 장비제조 등

- 成渝地區(성유지역 : 중경, 사천지역을 포함한 지역; 成: 사천성의 成都, 渝: 重慶을 지칭) : 청정식품, 섬유 의류, 자동차, 오토바이 산화알루미늄가공, 종합화학공업, 내연기기, 군사장비, 환경플랜트, 계측기기 등

³³)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영향요인 분석", 통상정보연구, 2007, 제9권 4호, pp. 446-447

³⁴) 그의 연구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근간으로 각 지역별 세계로부터의 수입품목과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품목간 시장 점유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수성의 경우 세계로부터 집적회로(IC)에 대한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데 이 중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약 30%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들다. 또한 주관적인 만족도 역시 회사내 지위나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므로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³⁵⁾.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 투자 기업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경영성과 요인으로 활용하여 변수간 통계적 유의미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설3-1: 기업규모에 따라 경영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2: 지역별 경영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3: 영업년수에 따라 경영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실증분석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조사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기업으로 최근 급속히 변하는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장애요인이 경영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해외투자 우리나라 제조기업 중 중국 12개 지역, 즉 광둥성, 산둥성, 장수성, 저장성, 지린성, 푸젠성, 하남성, 랴오닝성 등 8개 성(省)과 베이징, 상하이, 톈진, 홍콩 등 4개의 시(市)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자료를 Kotra로부터 지원받았다³⁶⁾. 이중 하남성(5개기업)과 홍콩을 제외한 10개 지역 해당 기업에 대해 2009년 5월11일부터 5월 16일까지 e-mail로 1차 설문을 발송하였다³⁷⁾. 그러나 해외진출 우리나라기업에 대한 e-mail 설문조사의 특성상 회수율이 절대적으로 낮아 1차에서는 32부(이중 2부는 부적격 설문으로 누락됨)만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어서 다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2차, 3차에 걸쳐 e-mail로 23부 회수, 이후부터는 6

³⁵⁾ 이에 대해 Geringer & Hebert(1991), Beamish & Delios(1997)은 객관적 재무자료와 경영자의 주관적 만족도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³⁶⁾ Kotra에서 지원받은 기업 자료는 세계 전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해외투자기업들에 대한 자료로써 해외투자 기업명, 주소, 투자형태, 투자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 기업들의 이동이(청산, 이전, 현지담당자의 교체 등) 많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가 확보된 중국 10개 지역 중 광둥성(140개), 장수성(275개), 산둥성(1000개), 베이징(84개), 지린성(23개) 등 약 20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e-mail에 오류가 있거나 바뀐 경우가 많아 300여개의 메일이 반송되어 오거나 수신확인이 안 되는 메일(350여개)도 있어 설문회수에 난관이 매우 많았다.

³⁷⁾ 하남성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진출기업의 수가 너무 적은 관계(5개 기업)로 지역간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라 판단되어 제외하였고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중국대륙에 진출한 우리나라기업이기 때문에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역시 제외되었다.

월 말까지 각 지역에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³⁸⁾. 이렇게 여러차례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된 설문은 총 79부로서 이중 3개의 설문(불성실한 응답설문과 전송되어 오는 도중 깨어진 파일 등)을 제외한 76부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활용되었다³⁹⁾.

또한 본 연구의 분석도구로는 SPSS 17.0이 활용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성분석(Reliability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의 방법으로 각각의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중국의 각 지역별 설문응답수는 장수성-12개, 광둥성과 라오닝성, 베이징이 각각 4개 기업, 산둥성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며 38개, 상하이-6개, 톈진-8개 기업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설문내용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기업들의 영업년수와 기업규모(종업원 수), 우리나라에 모기업의 존재유무, 투자형태와 지역별, 매출구조별(중국현지판매, 한국수출, 제3국수출) 비중 등을 살펴보았다⁴⁰⁾. 또한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19가지로 구분하여 5점 리커드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경영성과 항목은 2007, 2008 두 개 년도의 전년대비 매출증가율(%)로 파악하였다⁴¹⁾.

먼저, 분석대상기업들의 대중국 영업년수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 진출기업(30.4%)보다 2001년 이후 진출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69.6%), 특히 응답기업들은 2001년부터 2003년에 진출한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구분하여 우리나라기업의 영업년수를 분류해 보면 아래 <그림 2>와 같이 2001년-2003년 산둥성에 가장 많은 기업이 진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중국 진출지역으로 산둥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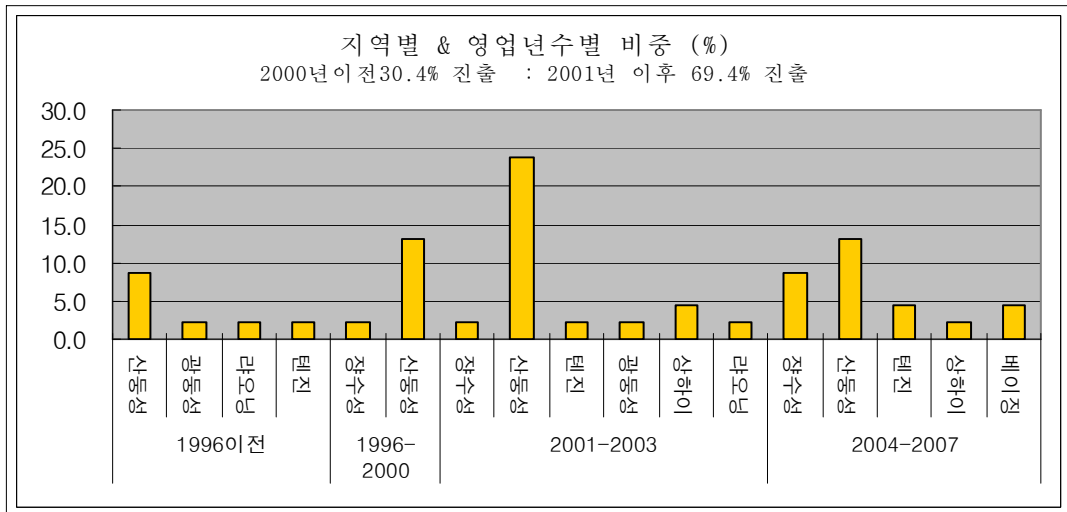
38) 우리나라 기업들이지만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국직원이 전화를 먼저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중국어를 구사하는 대학원생과 중국유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2주일간에 걸쳐서 국제전화를 시도하였다. 통화에 응한 기업 중 설문응답에 긍정적 답변을 한 기업에게 다시 e-mail로 설문을 보내어 회수하였으며, 일부 기업은 fax로 보내 오거나 또는 직접 국제전화를 걸어와 응답해 주는 성실한 응답자도 있었다.

39) 설문을 송부한 10개 지역 중 지린성과 푸젠성, 저장성에 진출한 기업들로 부터는 2부이하만이 수집되어 본 연구에서는 3개 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광둥성, 산둥성, 장수성, 라오닝성 등 4개 성(省)과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3개 시(市))으로부터 수집된 76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중국 진출 전체 기업수에 비해 응답한 표본수는 매우 적으나 기업들과 통화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설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문을 지워버리거나 응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실제 현지에서 설문을 배포,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의 연구에서 중국의 지역 특성상 각 지역별 설문배포와 회수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40) 응답기업들의 투자형태는 전체 응답기업중 93.5%가 단독투자 기업으로 나타나 단독투자자와 합작투자를 구분하는 분석 방법은 의미가 없을것이라 판단되어 투자형태별 차이점은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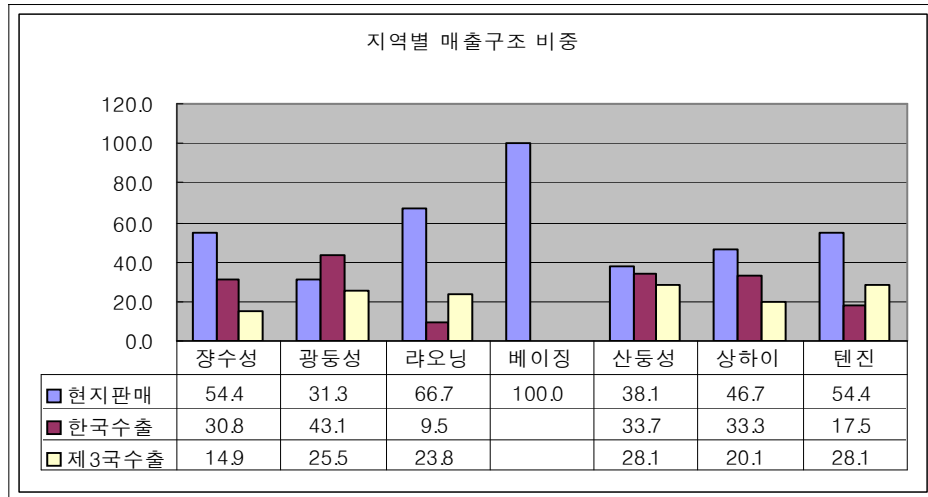
41) 설문에 응답한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담당자는 주로 현지 대표이거나 중국 현지기업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총경리'직책을 가진 직원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응답한 각 항목에 대한 측정치는 주관적 견해로 인해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많이 선택한 반면, 최근 2004년-2007년에는 산둥성에 진출하는 기업이 줄어드는 대신 장수성 진출기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기인한 베이징 등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톈진)에 진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대도시에는 서비스업종의 진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한국수출입은행, 2008) 본 분석대상기업들은 제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어 중국 대도시에 대한 현지판매를 목적으로 진출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3>지역별 매출구조참조).



[그림 2] 지역별 & 영업년수별 비중(%)

백은영(2009)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 투자에 대한 연구 결과, 경영성과(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구조로 중국 현지판매 변수가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중국 현지판매를 목적으로 진출한 경우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분석대상 기업의 지역별로 살펴보면, 베이징에 진출한 기업은 100% 중국 현지판매만 보이고 있으며, 톈진과 랴오닝 진출기업들도 한국수출이나 제3국 수출에 비해 현지판매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 기업들 역시 대중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이 과거 비용절감형 투자에서 최근에는 시장접근형 투자로 변모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판매를 목적으로 한 대도시 진출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재우 & 이홍식, 2004).



[그림 3] 지역별 매출구조 (비중 : %)

다음으로 분석대상기업들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⁴²⁾ <표 1>와 같이 전자부품, 컴퓨터 등의 전자통신 업종이 약 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기타 기계 (11.8%)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이 전자통신부문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2001년 이후 대중국 전자부품에 대한 투자액은 꾸준히 20%를 상회하다 2007년에 40%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⁴³⁾(한국수출입은행 각년도 해외투자통계). 이러한 이유는 최근 위안화 환율 상승과 인건비 부담, 또한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감소 등으로 인해 투자기업의 수익성과 채산성이 점차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대표 업종인 전자부품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⁴⁾.

42) 한국수출입은행의 업종분류표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기업들의 업종분류는 중분류로 구분하였다.

43) 2008년 대중국 업종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전자부품이 17.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장비(15.7%), 자동차 관련(14.2%) 투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4)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2007.8.23부터 1,853개 품목 추가시행) 및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하로 인하여 단순 가공무역에 대한 투자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 분석대상기업의 업종분류

업종 대분류	업종중분류	빈도	비중%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3	3.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4	5.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5.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5	6.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6.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4	5.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	19.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 시계	8	10.5
	전기장비 제조업	10	13.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1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1.3
	기타 제품 제조업	6	7.9
	합 계	76	100%

3.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다음은 중국 진출 분석대상기업들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factor analysis)하였다. 기업에 배포된 설문문항은 총 19개 항목으로 리커트(Likert)의 등간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19개의 측정치 중 타당성 있게 분류된 것은 <표 2>와 같이 2개의 항목, 즉, 고용비용 장애요인과 관련한 4개의 항목과 기업특유 장애요인 관련 3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추출된 2개 요인의 분산율은 고용비용 장애요인이 32.4%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기업특유 장애요인은 27.5%로 전체 설명력은 59.9%(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의 추출에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 PCA)방법이 활용되었으며 요인과 개별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회전은 요인간 상호독립성을 검증

하는데 유용한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이용하였다. 요인적재치는 0.5이상인 경우를 적용하여 매우 높은 적재량에 대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변수들간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의 값은 0.642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가 68.563이며, 유의확률은 0.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정충영·최이규, 2009).

〈표 2〉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정

측정항목	요 인	
	고용비용 장애요인	기업특유 장애요인
생산직 인력난	.799	.119
인건비 상승	.724	-.014
이직률	.720	.213
환율변동	.686	-.133
경쟁심화	-.117	.872
관료확보	-.012	.816
자본조달	.317	.647
고유치	2.267	1.923
고유치/문항수(분산율)	32.4%	27.5%
KMO	.642	
구형성검정치	68.563	
유의확률	.000	

다음으로는 각 요인간 측정변수가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갖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 알파값이 0.6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데, <표 3>와 같이 분석결과, 고용비용 장애요인의 4개 항목은 0.695, 기업특유 장애요인 3개 항목은 0.693으로 모든 변수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정

측정항목	요인명	문항수	Cronbach알파값
생산직 인력난	고용비용 장애요인	4문항	.695
인건비 상승			
이직률			
환율변동			
경쟁심화	기업특유 장애요인	3문항	.693
판로확보			
자본조달			

4. 실증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종속변수는 경영성과 즉, 매출액 변수를 2007년과 2008년 각각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2007년과 2008년의 대중국 투자환경의 변화가 매우 컸기 때문에⁴⁵⁾ 평균매출액을 활용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매출성고가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각 년도별로 매출액을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먼저, 기업특유 장애요인으로 경쟁심화, 판로확보, 자본조달 변수와 경영성과(전년대비 매출 증가율)간⁴⁶⁾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변수간 아무런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중 투자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기업별(또는 기업업종별) 특유 장애요인인 치열한 경쟁이나 판로확보에 대한 어려움, 현지 자본조달 등에 대한 압박감이 크더라도 경영성과와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고용비용과 관련된 장애요인중에는 <표 4>와 같이 이직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2007년 전년대비 매출증가율에 매우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신노동법’과 같은 정책이 실시되면서 대중 진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

45) 중국의 정책변화로 인한 투자환경 변화외에도 2008년에는 본격적으로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축, 즉, 전체적인 수요감소로 인해 응답기업들의 매출액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6)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두 가지를 활용하여 각각의 장애요인과의 연관성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영업이익 증가율은 모든 장애요인 변수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로 인건비 상승이나 노동자들의 이직률, 특히 생산직 인력난 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수출입 은행, 각 년도 투자동향). 따라서 응답기업들 역시 이직률에 대한 압박감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응답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결과에서 이직률은 0.05% 유의 수준 하에서 경영성과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 요인은 음(-)의 계수로 나타나 인건비상승에 대한 장애요인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기업이 인건비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고 해서 경영성과(2007, 2008년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알 수 있다(<표 4>, <표 5>).

이는 대중 투자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감지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경직되리라 예측한 까닭에 그에 대한 압박감이 곧 경영성과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008년 전년대비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2007년 경영성과와는 달리 이직률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참조).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dummy) 삽입 후 에도 변수 간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고용비용 장애요인과 경영성과간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계수(B)	t-value
2007년 전년대비 매출증가율	생산직 인력난	-3.686	-.347
	인건비 상승	-36.067	-2.842***
	이직률	24.586	2.458**
	환율변동	-2.878	-.416
	Dummy1(모기업유무)	14.562	.842
	Dummy2(기업규모)	-14.019	.332
	R2	.312	
	F값 (p값)	3.079**	
	관측치 수	75	

주) ***,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5〉 고용비용 장애요인과 경영성과간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계수(B)	t-value
2008년 전년대비 매출증가율	생산직 인력난	10.425	.746
	인건비 상승	-49.340	-2.916***
	이직률	10.199	.794
	환율변동	4.707	.492
	R2	.221	
	F값 (p값)	2.039*	
	관측치 수	76	

주) ***,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다음으로 분석대상기업들의 중국 각 지역별, 영업년수별, 기업규모별, 모기업유무에 따른 경영성과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존재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통계량, 즉,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값도 안정적이어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2007년 전년대비 매출성과와의 유의미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영업년수 변수만이 0.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지역별, 기업규모별, 모기업유무의 변수 등과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2008년 전년대비 경영성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에서는 지역별, 영업년수별 변수는 각각 0.05% 유의수준 하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별 변수는 0.10% 유의수준 하에서 2008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손정민·박영렬(2008)의 연구에서도 해외투자 기업의 규모와 영업년수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처럼 본 연구의 해외투자기업들의 기업규모와 중국에서의 영업년수 변수는 경영성과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중 투자기업의 중국내 장애요인과 경영성과간의 연관성에서 설명되었듯이, 우리나라 대중 투자기업들은 기업규모, 즉, 종업원 수가 많고 적음으로 인한 인건비상승 압박은 심하지만 경영성과가 나빠지지 않았던 것처럼(<표 4참조>) 기업규모와 경영성과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영업년수 변수는 2007년, 2008년의 전

년대비 경영성과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 해외투자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영업활동에 학습효과가 나타나면서 투자초기 기업에 비해 영업년수가 길수록 경영성과와 매우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Pan, Li & Tse(1999)⁴⁷⁾은 선점우위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의 진입시기, 진입방식 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한 즉, 영업년수가 긴 기업이 영업년수가 짧은 기업에 비해 성과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⁴⁸⁾.

마지막으로 응답기업의 7개 지역별(장수성, 산둥성, 광둥성, 랴오닝성 등 4개의 성(省)과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3개 시(市)) 변수와 경영성과 역시 0.05% 유의수준 하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기업들은 대중 투자지역에 따라 2008년 전년대비 경영성과 증가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지역별·영업년수별·규모와 경영성과간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계수(B)	t-value
2008년 전년대비 매출증가율	지역별	10.883	2.113**
	영업년수별	22.520	2.576**
	기업규모별	31.133	1.754*
	모기업유무	-3.051	-.131
	R2	.251	
	F값 (p값)	3.096**	

주) ***,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47) Pan & Li, Shaomin & Tse, D. K., "The Impact of Order and Mode of Market Entry on Profitability and Market Shar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0(1), 1999, pp. 81-104.

48) 반면, Lillien, G. L. & Yoon, E. "The Time of New entry: An Exploratory Study of New Industrial Products," *Management Science*, 36(5), 1990, pp. 568-585. Carpenter, G. S. & Nakamoto, Kent, "Consumer Preference Formation and Pioneering Advantag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6, 1989, pp.285-298. 이들의 연구에서는 후발진입자가 선발 이점을 극복하고 경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들은 후발진입자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무임승차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기술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더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선발진입자가 관성에 빠져 선발자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때 선발자의 선점우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대중 해외투자는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2008년 들어 총투자금액이 전년대비 29.0%나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대중 해외직접 투자를 감소시키는 현지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경영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먼저, 설문 응답기업들이 현지에서 체감하는 장애요인을 크게 기업특유 & 고용비용 장애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중국 현지 장애요인 중 우리나라 투자기업 특유의 요인을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3가지 요인, 즉, 경쟁심화, 판로확보의 어려움, 자본 조달 등의 변수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기업특유 장애요인과 경영성과 간에는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고용비용 장애요인, 즉, 생산직 인력난, 인건비 상승, 이직률, 환율변동 등의 변수 중 인건비 상승에 대한 장애요인과 이직률 요인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중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표적 장애요인으로 도출된 중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급변하는 중국의 노동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마인드 고취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분석대상기업들의 기업규모와 영업년수, 모기업유무, 그리고 대중국 지역별 변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역별 변수와 영업년수, 기업규모 변수가 각각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31개 성·시 중 본 연구 응답기업들이 진출한 지역(7개 지역)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한국 제조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투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업년수 변수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전술한 Pan, Li & Tse(1999), Luo(1998)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시장에 빨리 진출한 다국적기업일수록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Shamsie, Phelps & Kuperman(2004)⁴⁹⁾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기업들은 전략적 포지션(strategic positioning)으로서 중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히고

⁴⁹⁾ Shamsie, J., Phelps, C. & Kuperman, J.(2004), "Better Late than Never: A Study of Late Entrants in Household Electrical Equip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5, 2004, pp. 69-84.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조직학습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한국기업들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지식의 습득과 학습에 있어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반면,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제도적인 상황맥락(context)에 대한 한국기업의 적응성이 문화적 및 제도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해외 선진국기업들에 비해 더 강한 원인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연구에서 입증하듯이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 성과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보유한 경쟁우위요인을 내수에서 해외시장으로 확장함으로써 판로확대와 동시에 규모의 경제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의 경영자원, 즉 기술, 브랜드, 원자재 등의 시장거래를 기업내부의 거래로 내부화(internalization)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자 현지국에서 발생하는 제반 장애요인으로 인해 경영성과에 애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 해외직접투자는 지리적 인접성과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진출했지만, 중국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와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대중국 투자에 잦은 부침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대중 해외투자에 있어서 현지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기업특유요인과 고용비용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경영성과와의 연관성을 설문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투자기업의 규모, 영업년수, 특히 중국 각 지역을 구분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그 동안 진출 대상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를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국내 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현실적 측면을 더욱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실증 연구는, 우리나라 대중국 투자 제조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장애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장애요인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대중 투자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와 실증분석과정에서 연구의 엄밀성 및 정확성상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하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주영, “중국 진출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경영실태 분석과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8
- 백권호 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백은영, “우리나라 대 중국 현지 해외투자기업의 수익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 34권 제2호, 2009, pp. 235, 241-242
- _____,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영향요인 분석”, 통상정보연구, 2007, 제9권 4호, pp. 446-447
- 양평섭,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 변화와 사례분석”, 무역연구소, 2004
- 왕몽규, 『중국 중장기발전적 중요문제 2006-2020』, 중국발전출판사, 2005, pp. 170-178
- 이문형·정만태·김석진,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5, pp.18-34
- 이동기·조영곤·김명숙, “한국 기업의 중국 자회사의 성과 결정요인 연구”, 무역학회지, 제 28권 제3호, 2003, pp. 111-129
- 이승신, “중국4대經濟區 발전계획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2006, pp. 4-5
- 이재우·이홍식,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대외정책 연구, 제8권 제2호, 2004 pp. 277-278.
- 정충영·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2009
- 조대우,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장애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2008, pp.23-26
- 지만수 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각년도
- Barney, J.,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Vol. 17, No. 1, pp. 99-120. 1991
- Beamish, P. W. and J. C. Bank, Equity Joint Venture and The Theory of Multinational Enterpris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8, 1987, pp. 1-16
- Carpenter, G. S. & Nakamoto, Kent, “Consumer Preference Formation and Pioneering Advantage,”

-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6, 1989, pp.285-298.
- Gary Hamel and C. K. Prahalad, "Do you Really Have a Global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85 pp. 139-148
- Hines, James R., Jr., "Tax sparing" and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 James R. Hines Jr. ed., *International Taxation and Multinational Activ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 Hood, N, and S. Young,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Longman Group Ltd., 1979
- J. F. Hennart, "The Transactions Cost Theory of Joint Venture", *Management Science*. 1991
- J. F. Hennart and Y. Park, "Greenfield vs. Acquisition," *Management Science*, 1993
- Lieberman, M. B. & Montgomery, D. B.(1988), "First-Mover Advantag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9(1), 1998, pp. 41-58.
- Lillien, G. L. & Yoon, E. "The Time of New entry: An Exploratory Study of New Industrial Products," *Management Science*, 36(5), 1990, pp. 568-585.
- Loree, D. and Guisinger, S. 1995. "Policy and non-Policy Determinants of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 (2): 281-299. Also published in *Trade and Investment Policy*, edited by Thomas Brewer, Edward Elgar Publishing, Inc., 1998.
- Luo, Y. & Tan, J.J "A Comparison of Multinational and Domestic Firms in an Emerging Market: A Strategic Choice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ol. 4. No. 1, 1998, pp.21-40
- Luo, Y., Shenkar, O., & Nyaw, M-K, "Mitigating Liabilities of Foreignness: Defensive versus Offensive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ol. 8. No. 3., 2002, pp. 283-300
- Makino, Shige & Delios, Andrew, "Local Knowledge Transfer and Performance: Implications for Alliance Formation in Asi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7, 1996
- McCloughan, P. & Stone, I., "Life Duration of Foreign Multinational Subsidiaries: Evidence from U.K. Northern Manufacturing Industry 1970-93,"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16, No. 6, 1998, pp. 719-74

- Mezias, J. M., "How to Identify Liabilities of Foreignness and Assess Their Effects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ol.8, No. 3, 2002a, pp. 265-282
- Miles, R.E. & Snow, C.C.,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McGraw-Hill, 1978
- Nachum, L., "Liability of Foreignness in Global Competition? Financial Service Affiliates in the City of Lond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4, No. 12, 2003, pp. 1187-1208
- OECD, "Corporate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Tax Policy studies*, No. 4, 2001
- Pan, Yigang & Chi, S. K., "Financial Performance and Survival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China,"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4), 1999, pp. 359-374.
- _____ & Li, Shaomin & Tse, D. K., "The Impact of Order and Mode of Market Entry on Profitability and Market Shar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0(1), 1999, pp. 81-104.
- R. Caves,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1971.
- Rugman, A. M. & Verbeke, A., "Subsidiary-Specific Advantages in Multinational Enterpris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2, No. 3, 2001, pp. 237-250.
- Shamsie, J., Phelps, C. & Kuperman, J.(2004), "Better Late than Never: A Study of Late Entrants in Household Electrical Equip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5, 2004, pp. 69-84.
- S. Hymer.,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 : A study of direct investment*, Cambridge, MIT Press, 1960
- Swenson, D., L., "The Impact of U.S. Tax Reform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4, 1994, pp. 24-266
- Xu, D., & O. Shenkar, "Institutional Distance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 (4), 2002, pp.608 ~ 618
- Zaheer, S., "Overcoming the Liability of Foreignn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2), 1995, 341-360.